

포스터 디지털세대를 위한 미용교육 방법 연구

윤은재*

중부대학교 미용분장학과*

A Study on the Beauty Educational Method for Post Digital Generation

Un-Jae Yun *

Dept. of Cosmetology, Joongbu University*

요약 포스터 디지털세대를 주도할 전문 미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미용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고자 한다. 미용교육의 실태조사를 교육통계자료와 인터넷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Table 2, 3> 참조), 이를 통해 서울·경기권과 대전·충청권 미용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연구대상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KSDC의 온라인 설문조사-통계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교육은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전문대학, 대학원, 4년제 대학교 및 고등학교 순으로 개설되었고, 앞으로 보건계열이나 아트계열에 속하여 성장 가능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 결과(Fig. 1, 2, 3, 4, 5) 참조)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지만 남자 학생들의 비율의 상승, 전공의 세분화 및 고등학교의 경우 미용교육의 시작이 학원이 아닌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등의 상이점도 찾을 수 있었다. 미용교육기관 선정과 학습자 위주의 실태 조사가 된 점 및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의 미비 점은 추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용인, 미용학, 미용교육, 미용교육기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d the post digital generation of professional beautician training purpose is to find an efficient educational method. Beauty Education Facility survey conducted in the center of reminders and educational statistics (<Table 2, 3> note) and, thereby, Seoul, Daejeon, Chungcheong and Gyeonggi and beauty-related high schools and colleges,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in the study from June 10, 2013 July 31 to one of the online survey after having KSDC, KSDC online statistical analysis is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by. Through this study, unlike other studies beauty training colleges, graduate schools,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were opened in order, the future belongs to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or Art as areas of growth that was observed. Statistical results ([Fig. 1, 2, 3, 4, 5] not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but the rise in th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majors, the beauty of the segmentation and high school education is not the beginning of the percentage of high school increased so that it was able to find the differences. This study is to be excuse inadequacy of date selection for only certain number of beauty educational facilities, the learner-centered surveyors, and a lack of detailed educational curriculum and in-depth researched on educational method, which it is to modified and supplement in future.

Key Words : Beautician, Cosmetology, Beauty education, Beauty educational facility

Received 28 August 2013, Revised 27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Yun, Un-Jae(Joongbu University)
Email: yjml337@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세계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구상과 설계를 위해 지대하게 노력하고 있다.

1997년 교육부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혹은 지식기반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최근까지 부분 개정하고 있다. 2009년 개정에서는 창의성·인성·진로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학교와 학과의 자율성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포스트 디지털세대는 디지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났지만 인간적인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주체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세대로, 그들에게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의 연구는 필요하고 본다.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대표하는 실용학문인 미용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늦게 학문화되었지만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박사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이상적인 미용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미용교육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원하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먼저 미용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미용을 중심으로 교육과 교육과정 및 포스트 디지털세대와 u-러닝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교육통계자료[1]와 인터넷 사이트인 “대학알리미[2]” 자료를 중심으로 미용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3])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 통계 분석을 통한 결과와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21세기 미용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과 미용교육

교육(教育, education)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4].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은 한 나라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礎石)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 제3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5]. 한국은 1949년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법률 제11690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목적, 이념, 교육당사자, 교육의 진흥기관 등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5].

이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해야 하며, 교원은 교육자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 시키는 물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수빈(2011)은 교육은 “사회 속 학습자의 잠재력을 찾아 더 나은 배움과 삶을 열어 주기 위한 교수자의 배려와 활동이다”고 하였다[6].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미(美, beauty)이고 현재 이를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가 미용 혹은 뷰티산업이다.

미용(美容, beauty)은 인간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이며 법률 제11690호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5]고 정의하고 있다.

미용교육은 미용업을 담당하는 전문 미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미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6][7][8][9]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기준의 부재, 교육내용과 교육목표가 불일치한 교과목, 교과목 비중의 불일치, 승계 교육의 연계성 부족, 전공세분화의 특화 교육, 미용교육교재 개발, 교수법의 개발 및 현장중심 교육체제 도입 등의 연구과제도 있다. 김진수는 그의 논문(2003)에서 미용교육의 문제점을 교육목표, 교과목 명칭,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기준,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 등을 지적하였다[8].

미용교육은 하나의 학문이 아닌 예술적 미학, 철학, 과학, 기타 학문과 연계되어 학문간 융합을 이루고 있는 실용학문이다[7]. 이수빈(2012)은 현대미용은 인간을 대상으로 심미적, 사회적, 의학적인 모든 부분을 고려한 응용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하였다[6]. 황미경(2012)은 미용교육은 “미용의 이론적 기초지식과 응용지식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다”고 하였다[7].

이상을 통해 미용교육은 보건계열이나 아트계열로 크게 구분되어 사회적 요구와 함께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 교육과정

교육과정(教育課程, curriculum)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이다[4]. 유현숙(2012)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9]. 또한, 황미경(2012)은 교육과정은 “사회적 흐름, 실용성에 따라 유동적이다”[7]고 하였다. 즉,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4].

한국은 1967년 문교부령 제181호로 교육과정령을 통해 교육과정의 목적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였으나 1977년 문교부령 제404호로 폐지하였다. 또한 1959년 문교부령 제81호로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대통령령 제24423호까지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을 두어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심의와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있다[5].

한국의 교육과정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후 미군정청 학무국의 긴급조치와 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1997년 제7차 교육과정까지 제정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교육부는 이후 교육과정을 더 이상 전면적·일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10].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종전의 사실학원이 담당했던 고등학교 대상의 미용교육을 학교교육의 제도권 속에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6].

미용에 관련해서는 제1차 교육과정시 포함되어 편제

되었으나 제2차 교육과정 이후 삭제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 때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확대되면서 미용이 편제되어 있다.

미용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은 미용관련 전공자의 특성에 맞게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미용전문 인력을 개발하고 수준 높은 미용교육과 인재 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용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임희아(Lim, Heeya)의 경우만 박사학위논문이고 나머지는 석사학위논문들이다. 또한 연구대상 구분 중 Complex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및 한국과 외국의 교육과정 비교 등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Table 1> Previous Researchers Beauty Education

Object	Researcher(Years of Research)
High School	Kim, Eunhye(2012), Lee, Jayoung(2012), Lee, Misun(2011), Jung, Maeyeon(2011), Yoo, Kyungsuk(2010), Im, Mihyun(2010), Lee, Mijung(2007), Choi, Eunsoo(2005.), Yun, Hongsuk(2004), Kim, MeeNyu(2003)
College	Lim, Heeya(2010), Hwang, Injo(2009), Park, Sunghee(2009), Kim, Soonok(2007), Park, Bokyung(2006), Cha, Hoyeon(2006), Yang, Bokhee(2000), Kim, Guijung(1999), Lee, Wongyeon(1995.)
University	Hwang, Mikyung(2012), Go, Hyejung(2011), Lee, Okee(2006), An, Younghee(2004.)
Graduate School	Park, Heewon(2011), Lee, Subin(2011), Shin, Danjoo(2004), Kim, Mia(2004.)
Complex	Kim, Jieun(2013), Kwon, Dohee(2012.), Yoo, Hyuonsuk(2011), Kim, Eunhye(2011), Gong, Bokrye(2010), Choi, Eunha(2009), Oh, Suna(2008), Zhang, Sunha(2007), Lee, Youngok(2004), Kim, Jinsoo(2003)
Etc. (Vocational & Continuing E.)	Kim, Jongsuk(2011), Kang, Bokran(2010), Kim, Hyewon(2009), Lee, Inhee(2004), Seo, Eunzu(2010)

김진수는 그의 논문(2003)에서 학제간의 교육과정 체계를 정비해 각각의 학제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차원을 넘어 코디네이션까지 전공분야가 세분화해야 한다[8]고 하였다. 이수빈(2012)은 전공 교과목명의 불일치, 전공 필수에 대한 기준 불명확, 과목별 주

당 교육시간의 기준 불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6]. 한재숙(2012)은 네일교과서 개발, 독립된 네일 교육과정, 네일미용 교육의 체계화 등 네일교육의 보강을 주장하였다[11].

2.3 포스트 디지털세대와 u-러닝교육의 특징

21세기 정보기반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컴퓨터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정보 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PDG, Post Digital Generation)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으나 인간적, 아날로그적 감성을 함께 소유한 세대를 지칭한다[5]. PDG는 13~24세의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소비자들로서 “1980년 이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자라났으나, 디지털시대의 한계를 넘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다”로 정의된다[12].

디지털 기술의 사회영향은 산업내 전문화, 융·복합화의 전진 및 ‘소프트화·서비스화’의 가속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용 및 뷰티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용분야에서는 미용기기의 컴퓨터화와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고객관리 및 헤어디자인 창출, 경영관리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6, 8].

주영숙은 “21세기 디지털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멀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위송방송 등 학업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을 혼합한 교육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만이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13]고 하였다.

한국 교육기관에서는 1981년대 시청각 기기가 도입되었으며 1996년부터 컴퓨터를 기반으로 PC가 보급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은 최초의 ICT 활용교육부터 출발하여 e-러닝(electronic-learning), m-러닝(mobile-learning) 및 u-러닝(ubiquitous-learning)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었다.

u-러닝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교육을 의미하는 러닝(learning)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을 말한다[4].

송태임(2011)은 “u-러닝 환경에서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고, 교육방식도 이동 형으로 변할

것이며 학생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1: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고 하였다[14].

2009년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최고의 u-러닝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10], 2013년 법률 제11690호 교육기본법 제 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5]”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용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인 학생들 개인의 적성을 고려해 개발되어야 하고, 교육부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용교육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교육 방법 연구와 u-러닝 시대에 맞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미용 교육기관 현황 및 교육과정 실태 조사 연구

3.1 미용 교육기관

한국 미용교육의 시작은 1928년 11월 설립된 “경성미용학교”로 당시에는 직업학교 성격이었다. 1948년 “현대미용학원”의 설립을 통해 미용교육의 기초가 다져졌으며 1952년 “정화고등기술학교”와 1956년 “예림미용학교” 개교 등은 미용교육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1960년 표준화된 미용교육의 시작은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 798호로, 미용사 면허제도의 도입과 함께 고등 기술학교 2년 과정의 미용사 양성기관 설치가 규정되었다. 초창기 미용교육은 고등기술학교와 미용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미용 산업의 급격한 질적·양적 발전을 통해 미용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가 형성되어 우수한 전문 미용 인력을 공급하는 고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991년 미용관련 전문대학의 개설된 이후 2000년부터는 학제간의 단계인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에 관련 학과의 개설이 증가되고 있다[6].

한국의 미용교육은 다른 학문에 비해 학문적인 질적 향상보다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양

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과정에 속하는 미용관련 고등학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 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1]와 대학알리미[2]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1.1 미용고등학교

고등학교(高等學校, high school)는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기초적인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된다[5].

미용관련 고등학교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가사·실업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조리·의상·실내디자인 등과 함께 미용분야가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미용 교과과목 기준학과로는 1997년 헤어미용, 피부관리과, 2007년에는 메이크업이, 2011년에는 네일미용이 편성되었다[1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르면 피부미용, 메이크업, 헤어미용, 미용과로 학과가 구분된다[10].

1999년 “포항정보여자고등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메이크업과 미용정보과를 신설되었고, 2000년 고등학교 학력 인정 기관인 “부산미용고등학교”에 미용과가 개설되었으며 2003년 “전남미용고등학교”를 시작으로 3년제 미용 고등학교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11]. 2012년에는 미용인 양성교육 관련 고등학교가 56개로 증가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계열에서도 미용인 양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Table 2>참조).

<Table 2> States of Beauty-related High Schools

Area	Public	Private	Academic Recognition	total
Seoul·Gyeonggi	6	2	8	16
Busan·Gyeongsang	4	4	7	15
Gangwon	2	0	0	2
Daejeon·Chungcheong	4	2	1	7
Gwangju·Cholla	2	4	0	6
Jeju	0	1	0	1
Total	18	13	16	47

미용관련 고등학교의 학과 명칭은 학교 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계숙은 그의 논문에서 고등학교에서의 미용교육은 헤어미용 38.28%, 피부미용 27.58%, 메이크업 18.61%, 네일미용 8.18%, 공중보건 5.01%, 기타 3.34%로 구성된다[11].고 하였다.

3.1.2 미용 대학과 대학교 및 대학원

대학교(大學校, university)는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4], 일반, 산업, 교육, 전문, 원격, 기술 및 각종 대학으로 구분된다[5]. 전문대학(專門大學, college)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원(大學院, graduate school)은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최상층 교육기관으로[4],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과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및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5]. 본 연구에서는 개설 년도에 따라 전문대학, 대학원, 4년제 대학교 순으로 그 현황과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0년 초반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교육시장도 개방되었다. 이에 실무중심 교육기회의 확장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힘입어 전문대학(2년제 대학)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즉, 1991년 부산의 “동주대학”에 피부미용과가 강릉의 “영동대학”에 미용예술과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진로 및 취업률 면에서 전망 있는 학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수는 전문대학의 미용교육은 미용 인력 배출의 차원을 넘어 미용기술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지향해야 하며, 학과명의 다양화 추세는 미용교육의 다양화를 선도하지만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헤어, 피부, 메이크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8]고 하였다. 임희야는 그의 논문(2010)에서 미용 관련 교육기관의 학제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전공 필수과목의 표준화, 교육시설의 미비와 현장실습 문제점을 보완할 학교 지역 센터의 활용을 주장하였다[15].

1995년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이 수월해져 1996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구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대학원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미용의 학문적 체계화는 대학원 과정에 미용관련 전공이 개설되면서 가속화되었다. 1997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에 석사과정이 설치되었으며, 2005년에는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09년부터 “남부대학교”의 2개 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개설되었다[6]고 하였다.

김진수는 미용교육의 고학력화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 증진뿐 아니라 미용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8].고 하였다. 신단주는 그의 논문(2004)에서 대학원의 방향은 크게 뷰티 케어와 뷰티 디자인 분야로 분류되어야 하고, 4년제 대학교와의 교육과정 차별화, 첨단화 교육과정 및 관련 혹은 신규산업과 접목된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6]. 이수빈은 그의 논문(2012)에서 교육목표, 특성화된 교육과정, 학문적 바탕을 둔 교육과정, 전공교수의 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6].

학문의 세분화·전문화 양상에 따라 1999년 광주여자대학교에 4년제 미용과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미용교육의 중흥기가 이루어졌다.

이수빈은 전문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미용인 양성을,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전문 미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6].고 학제별 교육목적을 구분하였다. 황미경은 그의 논문(2012)에서 특정 대학교의 전공 교과목 편중화 경향,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과 실제적인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

“대학 알리미[2]”를 중심으로 전국의 뷰티 & 미용관련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tus of Beauty-related facility

Area	College	University	Graduated School
Seoul·Gyeonggi	24	6	1
Busan·GyeongNam	17	5	1
Daegu·GyeongBuk	17	5	0
Daejeon·Chungcheong	13	7	4
Gwangju·Cholla	21	10	4
Gangwon	5	2	0
Jeju	2	0	0
Total	99	35	10

이 현황조사에서 학교명에서 시대적 감각이 가미된 디지털 대학이란 명칭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학교명에서 2년제 대학의 경우 피부 관련 학과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헤어와 메이크업의 경우도 10개 이상의 학과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피부의 경우 스킨, 웰빙 등 다양한 학과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의 경우도 박승철, 준오, 이가자 등의 헤어샵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계약학과”가 있었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피부 관련 학과인 한방 피부 미용학과, 피부미용학과, 피부관리학과 등이 있었으며 메이크업 경우는 “성신여자대학교”의 메이크업 디자인학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용교육은 다른 학문에 비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학교, 학원, 고등기술학교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문대학, 대학원,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미용관련 학과들이 개설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유망학과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미용 교육과정 실태연구

미용 교육과정을 파악하고자 미용관련 학과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충청남도 J대학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을 통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경기권과 대전·충남권 고등학생,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KSDC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3명이 조사에 응해 주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온라인 설문조사자 153명의 응답을 KSDC의 온라인 통계분석 중 고급분석인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성별, 연령별)하였다.

조사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문항 5개와 미용을 처음 교육받은 기관과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 및 전공에 대한 문항 3개, 미용교육에 대한 문항 및 교육과정에 대한 문항 등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유형은 단일선택형, 매트릭스형, 우선순위형, 서술형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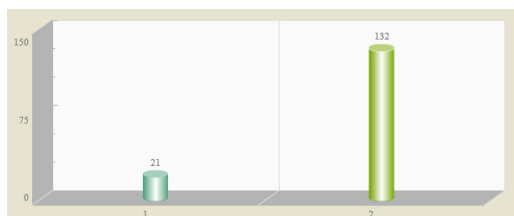
4. 미용교육 실태 연구 결과 및 제언

4.1 미용교육 실태조사 결과

KSDC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결과를 통계 나타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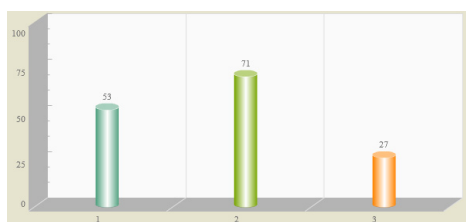
4.1.1 인구통계학적 문항

먼저 성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여자 86.3%(132명), 남자 13.7%(21명)을 차지해 미용학과 재학생의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행연구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차츰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Sex

연령에 대한 문항에서는 만 19세~21세 46.4%(71명), 만 16~18세 34.6%(53명), 만 22~25세 17.6%(27명), 기타 1.3%(2명)순 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29세 1명과 40세 이상 1명이었다.



[Fig. 2] Age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학교 55.56%(85명), 고등학교 39.87%(61명), 전문대학 2.61%(4명), 대학원 1.9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그 수가 적어 비교분석자료가 될 수 없었으므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중심의 연구가 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22.9%(35명), 2학년 40.5%(62명), 3학년 26.8(41명), 4학년 7.8(12명), 기타 2.0%(3명) 순으로,

기타의 경우는 대학원생이었다.

4.1.2 미용 교육 처음 받은 기관

미용교육을 처음 받은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원 47.7%(73명), 고등학교 35.3%(54명), 대학 혹은 대학교 16.3(25명), 기타 0.7(1명) 순이었다. 이를 성별교차분석의 경우 남자는 학원 10명, 대학 및 대학교 6명, 고등학교 4명, 기타 1명이었고, 여자는 학원 63명, 고등학교 50명, 대학 및 대학교 1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학원이 19세~21세 41명, 22~25세 18명, 16~18세 12명, 기타 2명 등 총 73명이고, 고등학교는 16~18세 41명, 19세~21세 13명 총 54명이며, 대학 및 대학교는 19세~21세 16명, 22~25세 9명 총 25명이고, 기타는 19세~21세 1명이었다. 대학생들은 학원에서 미용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16~18세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미용교육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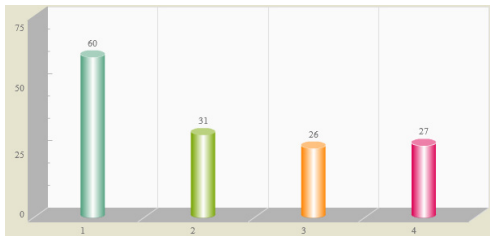
따라서 대학교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처음 미용교육을 시작한 장소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학원 및 고등학교와의 연계 교육방법 연구도 요구된다.

4.1.3 전공 선택 동기와 전공

전공의 선택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성 44.4%(68명), 전문직업 19.0%(29명), 부모나 주위의 권유 14.4%(22명), 기술습득 9.2%(14명), 기타 7.8%(12명), 성적 5.2%(8명)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는 사진이나 패션 디자인 등의 연계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차분석의 경우 남자는 적성 7명, 성적 6명, 부모와 주위 권유 및 전문직업 각각 3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적성 61명, 전문직업 26명, 권유 19명, 기술습득 13명, 기타 11명, 성적 2명으로 나타나 남·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전공의 경우는 메이크업 35.9%(60명), 피부 18.6%(31명), 네일 16.2%(27명), 헤어 15.6(26명), 기타 13.8%(23명) 순으로, 기타의 경우는 미정이거나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였다. 선행연구에 비해 피부, 네일, 헤어 등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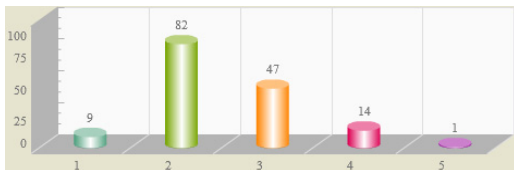
[Fig. 3] Majors

전공세분화에 대한 생각의 경우는 보통이다 39.2%, 그렇다 26.1%, 매우 그렇다 23.5%, 그렇지 않다 7.8%, 매우 그렇지 않다 3.3%순으로 나타났다.

4.1.4 미용교육

미용교육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의 경우 실기 실력 강화 교육 50.3%, 미용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26.1%, 현장 적응 16.3%, 전문지식 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교차 분석 결과 남자는 자긍심과 사명감 9명, 실기실력 7명, 현장적응 3명, 전문지식 2명 순으로 빈도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에 대한 결과는 실기심화 53.6%, 현장 적응 30.7%, 컴퓨터교육 9.2%, 이론 심화 5.9%,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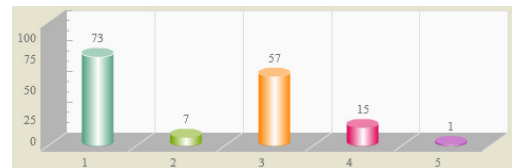


[Fig. 4] Enhanced Training Expertise

이에 따른 현장 실습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 본 결과 매우 그렇다 50.3%, 그렇다 37.9%, 보통이다 11.80%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보통이다 36.3%, 그렇다 31.4%, 매우 15.7%, 그렇지 않다 11.1%, 매우 그렇지 않다 5.2%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교육의 미용관련 활용부분은 1순위 경우 고객관리 47.71%,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교육 37.3%, 정보활

용 9.8%, 문서 처리 4.6%, 기타 0.7%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남자들은 컴퓨터 활용 실기교육 9명, 고객관리 6명, 정보활용 5명, 문서처리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도 고객관리 67명,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교육 48명, 정보활용 10명, 문서처리 6명,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교차분석에서는 19~21세의 경우 고객관리 34명,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교육 23명, 정보활용 9명, 문서관리 5명 총 71명이었고 16~18세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기교육 24명, 고객관리 23명, 정보활용 4명, 문서관리와 기타가 각각 1명씩 나타났다.



[Fig. 5] Computer Literacy

이론과 실기교육의 적절한 구성 비율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론 30: 실기 70이 57.5%, 이론 40: 실기 60이 22.2%, 이론 50: 실기 50이 13.7%, 이론 60: 실기 40이 3.3%, 이론 70: 실기 30이 2.6%, 기타 0.72%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시설 미비 34.0%, 학습자 태도 20.9%, 교육방법 부실 17%, 교육과정 14.4%, 교육자의 자질 및 수적 부족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는 학습자 태도, 교육시설 미비, 교육자의 자질 및 부족이 각각 5명, 교육방법 부실과 학습자 태도 각각 3명씩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교육시설미비 47명, 학습자태도 27명, 교육방법 부실 23명, 교육과정 19명, 교육자의 자질과 수적 부족이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는 19~21세의 경우 교육시설미비 21명, 교육방법 부실 15명, 교육과정 14명, 학습자태도 12명, 교육자의 자질과 수적 부족 9명 총 71명이었고 16~18세의 경우는 교육시설 미비와 학습자태도가 각각 18명, 교육자의 자질과 수적 부족이 8명, 교육방법 부실 5명, 교육과정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와 16~18세의 경우 학습자태도를 선택한 경우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용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 54.2%, 그렇다 19.6%, 그렇지 않다 18.3%, 매우 그렇다 6.5%, 매우 그렇지 않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4.1.5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 56.2%, 그렇지 않다 20.3%, 그렇다 17.6%, 매우 그렇다 4.6%, 매우 그렇지 않다 1.3% 순이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1.0%, 그렇지 않다 25.5%, 그렇다 15.0, 매우 그렇다 4.6%, 매우 그렇지 않다 3.92% 순으로 나타났다.

또는 교육과정 개선점으로는 1순위가 실기과목 보강 38.6%, 전공별세분화 30.1%, 현장 실습 강화 29.4 %, 이론 과목 보강 2.0% 순 이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학생들의 교과목 개설 희망사항으로는 네일 아트 수업의 확대와 연계 전공 및 현장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대회 및 자격증 준비 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3년 정부의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제도가 확실한 시점에서 네일아트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과 전공 트랙확보 및 시수 확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 제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미용인들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위한 본 연구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흐름과 교육 정책을 감안한 학습자의 개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정립은 물론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u-러닝 활용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각 대학과 학과의 자율성 강화는 각 대학의 특성화와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학문 연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포스트 디지털 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나 연구 결과에서는 실기수업, 현장실습 수업에 비해 필요성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과 네일의 국가자격증이 확실히 되는 시점에서 네일 교육의 보강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네일아트 전공자의 수가 증가한 점과 현장실습 및 컴퓨터교육의 필요성 등 미용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이 학습자 중심의 연구가 된 점은 앞으로 보완 수정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미용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가 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 미용관련 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선안 연구가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며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방법 연구가 계속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1] www.chedi.re.kr
- [2] www.academyinfo.go.kr
- [3] www.ksdc.re.kr
- [4] www.naver.com
- [5] www.law.go.kr
- [6] Su-Bin Lee, Developing the Curriculum.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2012.
- [7] Mi-kyung Hwang, An Analytical Study on Curricula of 4-Year-Course Universities of Cosmetology.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2012.
- [8] Jin-soo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Cosmetology Educational Curriculum.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2003.
- [9] Sook-hyeon Yoo,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and Related Variables in Beauty-Related Departm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2012.
- [10] www.moe.go.kr

- [11] Jae-sook Han, Analysis on the high School Text books for Nail.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2012.
- [12] Ki-Rock Lee, A Study on Design Development of Portable Multimedia Player for Post Digital Generation.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7.
- [13] Young-sook Joo, The Study of Individual Design Education With ICT. Ph. 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0.
- [14] Tae-im Song. The U-learning-bas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or the Skin Care Theory and Dractice Unit in Skin Care Subject. Master's Thesis, Hoonam University, 2011.
- [15] Hee-ya Lim. A Study on the Curriculum Improvement for the Achievement of Technical of Goal of Beauty Education in College. Ph. D.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2010.
- [16] Dan-joo Shin(2004).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Beauty Related Departments at the Graduate Level.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4.

윤 은 재(Yun, Un-Jae)



- 1986년 2월 : 세종대학교 졸업(가정학 학사)
- 1988년 8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가정학 석사)
- 1994년 5월 :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원(M.A.)
- 1997년 8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미용분장학과 교수(부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과 디자인, 교육
- E-Mail : yjm1337@gmail.com